

착시효과를 응용한 여자 청바지 디자인

- 선의 착시를 중심으로 -

류 경 옥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Design of Blue-Jean for Women that Apply Optical Illusion

- Focusing on Linear Optical Illusions -

Kyoung-Ok Ryu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투고일: 2009. 9. 7, 심사(수정)일: 2010. 2. 4, 게재확정일: 2010. 2. 1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Blue-Jean Design for Ideal Body Shape. The final aim of Fashion design is looks beauty of people by optical illusion. This study is based on Gestalt therapy and, is blue jeans design using optical illusion of vertical line for ideal beauty body image. Optical illusion for blue-jean design effect to achieve the ideal body shape. We can accumulate the preceding study for modern clothing from design and the related optical illusion effects. Vertical line stitches have all the advantages especially in pants design. I design blue jeans using optical illusion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Vertical line helps that jean has the long body shape effectively. Second, Jeans which have two or more vertical lines is more effective than simple Jean in order to make slim body shape. Third, Appropriate position of horizontal lines can be effective to make long body shape. Fourth, Top stitch, pin-tuck and pleats can be applied to vertical or horizontal lines instead of cutting lines.

Key words: Blue-Jean(청바지), optical illusion(착시), ideal beauty body shape(이상체형)

I. 서론

각 분야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닌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의식의 변화는 의복으로 이어져 실용성이나 경제성을 바탕으로 소재, 품질의 고급화 및 쾌적성이 추구되는 한편, 소비자의 미의식에 영향을 주는 감성적 측면의 의복디자인과 이미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의복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요소들로 형성된 의복은 시각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로서, 형과 형태는 선과 공간의 효과가 복합되어 표현되어 흥미를 이끌어 내고 심리적 분위기와 착시를 표현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진다.

현대여성의 인체에 대한 미의 기준은 신장, 체중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인 체형이 인체의 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매우 마른 몸매가 가장 이상적인 미의 기준¹⁾이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등 날씬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한다.

인간의 눈은 외부로부터 영상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시각적동물이라고도 하는데²⁾ 시각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르게 판단하는 시각현상을 착시라고 하고, 의복디자인의 궁극적 목표도 착시를 일으키는 시지각의 특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여 복식착용자의 매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조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바지는 실용적인 옷이며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착용하는 일상적인 의복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청바지를 감성적인 패션제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³⁾.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진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라는 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견해였지만 최근 디자인을 살펴보면 스키니(Skinny), 로라이즈(Low Rise), 부트 컷(Boot Cut) 등 매년, 아니 계절마다 새로운 스타일이나 용어로 제시되고 있다.

청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의 핏(fit)이 만족스러운 청바지를 구매하려고 하며, 청바지의 착용을 통해 날씬하

고 매력적인 하반신 실루엣을 연출하려는 목적으로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⁶⁾. 또한 국내의 유명인들의 영향으로 유행되기 시작한 프리미엄진의 출현은 장기간의 불황에도 유행아이템으로써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⁷⁾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쁘고, 다리가 길어 보이며 날씬해 보이는 청바지 디자인은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로는 청바지구매의도, 만족도, 현황이 조사되었을 뿐 디자인 요구와 제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착시이론과 이상적으로 보이는 체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 역시 각기 연구되어졌으나 이를 응용하여 구체적인 의복 디자인으로 적용되어지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및 인터넷 기사 자료를 토대로 착시와 이상체형에 대한 고찰을 하고, 선의 착시를 활용한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청바지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 앞서 디자인의 여러 가지 요소는 제외시키고 한다. 왜냐하면 청바지 아이템에 있어 수많은 가공에 의해 변하는 색상과 재질감 등의 디자인요소를 객관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절개선과 장식으로 만들어진 선의 역할만으로 연구영역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선이 의복디자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찰을 한 후, 이 이론을 적용한 청바지 디자인을 제안하여 이를 여대생 89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의 타당성을 설문하였다. 분석은 SAS/PC를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0일에서 7월 6일까지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와 디자인 요소에서 선의 역할과 착시효과를 고찰한다.
2. 선의 착시효과를 이용한 청바지 디자인을 제시한다.
3. 디자인한 청바지의 시각적 효과를 조사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선의 착시가 입체적 표현방식에 실질적으로 응용되는 기초자료가 되어 의복 구성학 및 디자인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발전을 위해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착시이론

시각기에 있어서 착시 연구는 Max Wertheimer를 선두로 Wolfgan Köhler, Kurt Koffka 등의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에 시작되어 국내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 진행되고 있는 등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시각은 주변상황에 따라 가변성을 지니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⁸⁾. 구체적인 예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기의 판단을 할 때 에워싸인 모양에 의해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즉, 어떤 물체는 주변의 다른 물체와의 색의 대비나 동화, 선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보여 지는 것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의복과 관련된 착시의 연구로 수평선과 수직선의 착시효과와 직물패턴의 수직·수평·사선에 대한 연구⁹⁾, 게스탈트 착시를 의복에 적용하여 실험한 연구¹⁰⁾, 의복무늬의 크기와 배열 그리고 명도대비에 따른 체형의 착시¹¹⁾를 연구한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단순한 기본 원형에 대한 실험으로 실제의 복에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진다.

2. 의복 디자인요소 중 선과 착시

의복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착시로는 선, 형, 색, 채, 재질 등이 상호작용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디자인요소와 의복의 착시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로 Davis¹²⁾는 여러 가지 디자인요소와 의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Aubert와 Tichener and Lipps¹³⁾는 형에 대한 착시에 대하여 박혜령¹⁴⁾은 선과 색채

에 대한 연구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선, 형태, 색, 재질 등의 디자인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보다 이상적인 디자인 개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선의 착시를 살펴보면, Davis의 연구에서 선은 경로, 연속성, 길이, 방향 등의 9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측면이든 다양한 심리적 효과를 유발하고 직선과 곡선, 불규칙선 등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Sailor와 Bear는 의복디자인 선의 시각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디자인 선에 대한 시각은 선의 요인(수직선 방향의 시각), 유행요인(옷단에서 선의 시각), 실루엣 요인(수평·수직선에 의한 외형특성을 나타내는 시각), 세부요인(의복 내사선 및 부분을 나타내는 선의 시각) 등 네 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의복에 대한 경험이나 훈련보다 선의 시각이 큰 영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¹⁶⁾¹⁷⁾. 류정아의 연구¹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복에서 수직방향이나 사선 방향의 선은 다양한 착시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조합될 수 있으며 수직선은 날씬하고 키가 큰 인체미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수평·수직의 착시는 눈의 수직운동이 수평운동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눈의 운동이론¹⁹⁾에 따르면 의복에서 짧은 선으로 수직강조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긴 의복의 하나인 바지에 긴 수직선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박채련²⁰⁾은 무릎길이의 원피스 수평 절개선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실험하였는데 선의 위치가 앞품선에 위치할 때 가장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표 1> 디자인 요소와 착시

디자인요소	착시
선	수직선: 길고 좁아 보임, 수평선: 짧고 넓어 보임, 사선: 두 사선의 각이 클수록 좁아 보임, 직선: 둥근 신체를 완화, 곡선: 각진 신체를 완화
형태	가늘고 수직: 길고 좁아 보임, 두껍고 수평: 짧고 넓어 보임 신체확장과 체형을 위장할 수 있다.
색	보색, 명도, 채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착시로 팽창과 수축의 효과
재질	재질감에 따라 길이확장, 면적확대의 착시효과

효과가 있고, 허리선에 있을 때 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나 선호도에 있어서는 허리선 아래의 수평선이 허리선의 수평선보다 나쁜 결과를 보였다. 즉 수직선 외에 수평선의 위치도 길이와 날씬해 보이는 역할에 중요한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는 연구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모두 스커트와 원피스의 한정적인 아이템을 연구하였을 뿐 바지나 다른 의복 아이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와 같이 의복에서의 시각적 착시효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인체를 착시라는 시각작용에 의하여 이상적인 인체 즉 보다 날씬하게, 보다 아름답게 그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선은 자연 속에서는 큰 역할로 보여 지지 않으나 조형예술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각적 작용을 하는데 선은 길이와 넓이의 시각적인 구분을 하며 선이 결합하여 공간을 형성하고 형태와 모양을 결정지며 방향을 유도 한다²¹⁾. 이러한 선들은 굵고 가는 것, 길고 짧은 것, 개수, 각도 등에서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지며 다르게 변화되므로²²⁾ 이를 아름답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적 이상체형

역사적으로 신체적 아름다움의 이상은 특정시대의 미적기준과 일치하면서 변화해왔고 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²³⁾. 과거에 미의 기준이 미술, 문학 등의 예술 영역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파되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보편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80년대에는 여성의 남성화 경향으로 어깨가 넓고 근육질의 크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 이상형이었으나 90년대를 거쳐 현재에는 영상 대중매체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한 패션문화를 접하고 있어 패션쇼 등에서 보여지는 극도로 마르고 키가 크며 다리가 긴 체형의 여성이 이상형이 되었다. 이는 현대의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연구들^{24) 25) 26)}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신체적 이상형에 대한 추구를 해왔으며 이는 인체의 비율에 대한 이론을 가져왔다. 비례란 부분들의 상호관계에서 직관적으로 쾌적한 관

계²⁷⁾를 말하고 인체의 비례는 길이를 우선하고 양의 비례는 무시되어 왔으며²⁸⁾ 시대와 민족, 개인에 따라 달라져 절대적인 수치라고는 할 수는 없고, 각 시대마다 인체비례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복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착시를 일으키는 시지각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시대적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외모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이상적 체형은 실제 신체요소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좁히기 위하여 신체장식이나 변형을 이용하거나²⁹⁾ 착시효과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대중적인 실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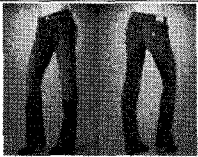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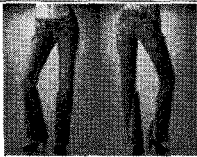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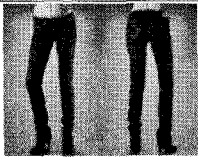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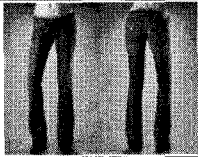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키가 크며 다리가 긴 체형으로 보이는데 효과적인 청바지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시판 청바지 디자인

2006년 조사에 의하면 패션시장에서 단일 품목으로 14.2%의 매출이 예상되면서 청바지는 국내 패션 의류시장에서 단일 아이템으로 최대 규모를 형성하게 되었다³⁰⁾. 시판청바지는 부츠 컷, 스키니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디자인되어 지고 있고, 헐리웃의 연예인을 비롯하여 국내 연예인들과 패션리더들의 영향으로 프리미엄 진과 이를 모방한 제품들의 유행이 보여 지고 있다. <표 2>³¹⁾는 2009년 6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청바지를 형태별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의 대부분은 아래의 실루엣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화점 매출순위 3위까지의 청바지 브랜드 3곳의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주름 모양을 내거나 위상의 효과를 다양하게 하고 있었고, 앞주머니와 엉덩이부위의 주머니, 뒷요크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디자인이 대부분으로 다리뎀판에는 절개선이 없는 디자인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청바지의 착용이 증가하면서 청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마케팅과 품질관리의 연구³²⁾, 맞춤새를 살펴보는 구성 연구³³⁾, 디자인 논문으로 부분적인 장식기법을 응용한 스티치기법의 의상디자인³⁴⁾과 울풀기 기법을 의상디자인³⁵⁾이 있을 뿐이었다. 이밖에 부츠컷 청바지의 착용실태³⁶⁾, 청바지 이미지³⁷⁾등이 연구되었는데 시대적 요구인 길어

〈표 2〉 시판 청바지의 형태별 구분 트루릴리즌 여성용 청바지(검색일 2009. 06. 21)

구분	Bootcut	Flare	Skinny	Straight Leg	Crops
디자인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청바지 디자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청바지는 개인이미지와 의복이미지 그리고 시대상황과 유행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성인 여성의 신체조건에 따라 본인의 체형을 의식하여 신체적 외모를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³⁸⁾로 알 수 있듯이 패션의 필수 아이템인 청바지디자인에 착시효과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원하는 청바지에 대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청바지라는 아이템에 있어 색을 따로 연구하거나 수많은 가공에 의해 변하는 재질의 디자인요소를 객관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색채와 재질은 같은 조건으로 전제하고, 절개선, 실루엣에 의한 선, 장식적인 선의 착시를 이용한 디자인 전개를 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선이 아니고 면적 분할의 역할도 기대한다.

연구에 앞서 의복패턴을 시뮬레이션 시켜주는 3D 가상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자인의 객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정도가 주름, 핀턱 등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디자인 뿐 아니라 기타의 디자인 작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Adobe Illustrator CS, Adobe Photoshop CS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청바지는 이제 실용적인 아이템에서 벗어나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 되었으며 국내외 유명인들을 선두로 하여 경쟁적으로 새로운 재질, 가공 그리고 장식 이 선보이며 디자인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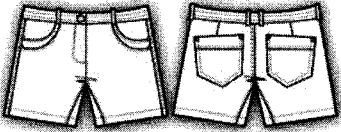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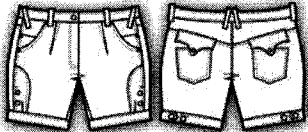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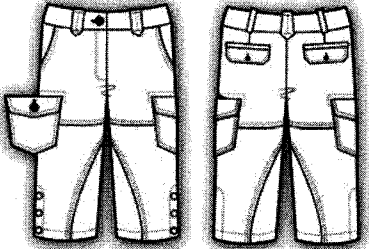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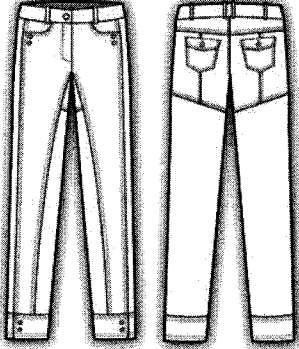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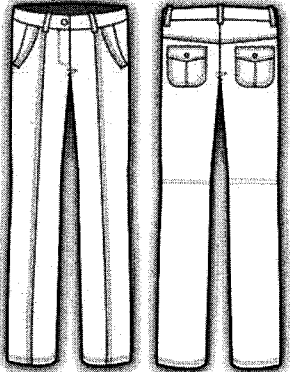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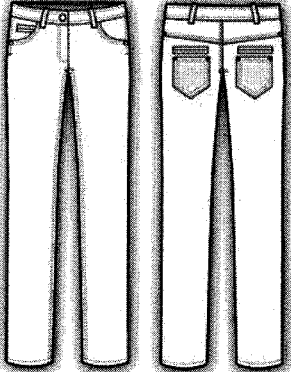
인 여성들은 다리길이와 모양, 엉덩이 형태, 날씬한 정도에 따라 청바지 선택에 제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에 관심이 많고 경제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20~24세의 성인여성을 위한 청바지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타겟의 가상모형은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³⁹⁾의 자료 중 위 연령대의 표준체형으로 키160.3cm, 몸무게53.3kg, 엉덩이 둘레 91.1cm, 허리둘레 67.1cm, 허리높이(바지 길이 대체) 100.0cm, 살높이 72.4cm를 사용하였다. 이 연령대는 신체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청바지의 실 구매 소비자가 많은 집단이다.

이는 우선 봄, 여름 시즌을 위한 디자인으로 색상은 고려하지 않은 연구이나, 현재 2009년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오리지널 색상인 인디고 블루(Indigo Blue)와 봄 여름시즌에 알맞은 아이스블루(Ice blue), 화이트(white)로 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젊은 여성들의 활동성에 알맞도록 신축성이 있는 Cotton98%와 Spandex 2%의 혼용소재를 선택하였다. 사용한 주요 장식으로는 굵은 스티치, 핀턱(pin-tuck) 등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착시효과를 응용한 디자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Design1의 앞면은 바깥쪽의 옆선이 앞에서 보이도록 위치를 정하고, 주머니 입구를 두 개의 곡선으로 정하여 엉덩이의 곡선은 살리지만 면적을 분산하여 날씬해 보이도록 하였고, 뒷면에서는 역시 살 아래로 내려가는 옆선이 보이도록 스티치 장식을 하여 뚱뚱해 보일 수 있는 엉덩이 곡선은 완화 시키고,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가 비교적 예쁘지 않아 엉덩이가 쳐져 보이는 한국인 체형에 알맞도록 주머니의 크기를 알맞게 조정하

<표 3> 청바지 디자인 전개

Market5	Contemporary Women	Age	20 ~ 32
Season	Spring Summer	Price	Moderate
Fabric	Cotton 98%, Spandex 2% Denim	Color	
Theme Image		Illustration Image	
Design 1		Design 2	
Design 3		Design 4	
Design 5		기본 Design	

면서 위치를 너무 낮지 않게 정하였다. Design2는 면적을 여러 개로 나누어 시선이 분산되도록 하는 효과를 이용한 디자인으로 바지부리의 여밈과 뒷주머니의 뚜껑 위치를 변화시켜 귀여운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긴 수직선을 사용할 수 있는 긴 바지가 아니므로 장식적인 분할을 많이 하여 시선을 분산시킴으로써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가진다. Design3은 다리 부분이 길어보이도록 사선으로 무(gore)형식의 면적을 나누었으며, 실용적이 사이드 주머니는 부풀리지 않고 다리에 달라붙도록 하여 옆모습에 방향 감을 주는 동시에 뚱뚱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는 길이의 바지이므로 바지 몸판에 수평선을 비례적으로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한다. Design4는 앞면에서는 수직선의 착시 응용, 뒷면에서는 방향감과 면적의 착시를 응용한 것으로 체형을 보완해주는 스키니 진의 디자인이다. 적절한 배분의 바지 밑단의 커프스는 오히려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Design5는 핀턱(pin-tuck)과 스티치를 이용한 것으로 방향성을 나타내어 길고 날씬하게 보이게 했으며, 뒷면의 무릎보다 위쪽에 위치한 수평 절개선으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고, 주머니의 크기와 위치로 엉덩이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였다. 마지막 바지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본 디자인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볼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상과 같이 디자인한 청바지가 다리가 길어 보이는 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을 도식화 상태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분산분석 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길어 보이는 효과로 Design 5>

Design 4>기본Design>Design 1>Design 2>Design 3로 나타났다. 이는 수직선을 이용한 핀턱과 수평선을 높게 위치한 Design 5와 Design 4가 좋은 답을 얻은 결과인데 선의 착시이론에 따른 예상대로 수직선과 수평선의 위치는 길어 보이는 착시효과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또한 박채련의 결과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 Design인 긴 바지보다 Design 1의 경우가 더 길어 보인다고 답했는데 이는 조사한 시기와 디자인 전개 의 계절이 여름이어서 짧은 바지에 대한 선호가 대 변된 것으로 보인다.

날씬해 보이는 효과로 Design 4>Design 1>Design 5>기본 Design>Design 2>Design 3로 답하였다. Design 4의 경우 수직선이 두 줄로 다리 면적을 나누고 살과 연결되는 바지 절개선이 방향 감을 주기 때문에 보다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Design 1>기본 Design>Design 4>Design 5>Design 2>Design 3 순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날씬해 보이는 효과와 길어 보이는 효과와는 비교적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Design 1의 경우 2009년 여름의 트렌드와 조사대상이 여대생이어서 선택된 것으로 해석되고 기본 Design 의 경우, 익숙하고 유행에 뒤쳐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적기 때문에 선호디자인으로 선택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Design 3의 경우 수직선과 수평선을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바지 길이가 다리길이의 비율을 반으로 나누는 길이여서인지 길어 보이는 효과, 날씬해 보이는 효과, 선호도 모두의 경우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답을 나타내었다.

<표 4> 디자인별 시각적 효과

Design 효과	기본 Design	Design 1	Design 2	Design 3	Design 4	Design 5	F값
길어 보이는 효과	3.625 B	3.525 B	3.125 B	2.850 C	4.475 A	4.725 A	7.50**
날씬해 보이는 효과	4.100 B	4.800 A	3.935 B	3.635 B	4.975 A	4.450 A	8.04***
선호하는 디자인	3.950 AB	4.475 A	3.425 C	3.125 C	3.625 B	3.525 B	4.93**

이상과 같이 선의 위치에 따른 디자인은 방향 감을 주고, 면적을 적절히 분산시키기 때문에 의복의 착시효과를 동반하여 신체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의복의 악센트가 되어 시선을 분산하거나 돋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긴 길이의 수직선은 길어 보이는 데 효과적이고 두 줄 이상의 수직선은 면적 분할의 효과로 인하여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수평선 역시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디자인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선호도에 있어서는 조금 나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의복 선택 시 이상체형인 길어 보이는 것과 날씬해 보이는 것과는 별도로 계절이나 유행요소가 반영되어진다고 사료된다.

IV. 결론

이상적인 인체미를 추구하기 위해 의복으로 인체를 오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방법과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여 시각적 착시효과에 의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의복에서의 착시효과를 규명하고, 매력적인 하반신 실루엣을 연출하려는 목적으로 청바지를 착용하려는 국내 성인여성을 위해 예쁘고, 다리가 길어 보이며 날씬해 보이는 착시효과를 응용한 청바지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객관화시키기 위하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의복 디자인요소 중 면적의 분할을 담당하는 선은 넓고 좁아 보이는 효과, 길고 짧아 보이는 착시효과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다리 길이만큼 수직선을 표현 할 수 있는 청바지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둘째, 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면적의 분할을 이용한 착시효과를 청바지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청바지디자인에서 수평선의 위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거나, 두 줄 이상의 긴 수직선은 보다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가공과 색깔요소를 제외한 청바지 디자인에서 컷팅(cutting)과 장식(detail)외에 스티치(top-stitch)

나 핀턱(pin-tuck)은 절개선이 아닌 선의 표현으로 이를 활용한 디자인은 체형개선에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선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을 이용한 방향감과 면적의 분할이 착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이상적 체형에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Line)은 스티치나 턱(tuck) 등 그 자체가 가지는 조형적 특성과 아름다움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갈망하는 날씬한 체형으로 보이는 것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청바지 뿐 아니라 기타의 의복 아이템에 널리 응용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면을 나누는 비례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는 착시효과를 응용한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청바지 디자인을 제안하였지만 실물제작 및 착의 실험이 이뤄지지 않고 설문으로 그 점수를 평가한 것이 제한점으로 실물제작 및 체형과의 관계도 연구되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기초로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실물제작 및 자료화되어 다음 디자인에 활발히 활용되기 바란다.

참고문헌

- 1) 최미성 (2008).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인식과 선호체형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3), pp. 443-453.
- 2) Richard, L. Gregory (1997). *Eye & Brain: The Psychology of Se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94-243.
- 3) 김양원, 이해영, 이은경 (1997).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취급실태. *한국생활과학회지*, 6(2), pp. 115-120.
- 4) 고애란 (1994). 국내 및 외국 상표 청바지의 구매의도에 따른 평가에 대한 신념과 추구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차이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2), pp. 263-272.
- 5) 김연정 (2003). *청바지 형태에 따른 소비자 착용실태 및 착의평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정숙, 성수광 (2003). 진 슬랙스 구입 및 수선에 관한 실태조사-18~23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2), pp. 153-158.
- 7) 불황도 비껴간 美 프리미엄업진 시장 '후끈'(자료 검색일 2009. 06. 08). *성공창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뉴스팀. 자료출처 http://www.bizplace.co.kr/biz_html/content/naver_content_view.html?seq_no=20567&page=1&b_code=&code=2009.07.01
- 8) 최윤미 (1993). 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양식 및 그

-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1), pp. 137-149.
- 9) 류정아 (1992). *의복디자인의 선이 체형에 미치는 착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이미정, 이인자 (1994). 의복디자인에 따른 게스탈트 착시효과에 관한 연구. *복식*, 22, pp. 333-344.
- 11) 최은영 (1995). 무늬의 크기, 배열, 명도대비에 따른 시각적효과에 관한 연구. *복식*, 24호, pp. 193-203.
- 12) Marin, L. Davis (1980).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p. 45.
- 13) Harriet, T. Mcjimsey (1976).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p. 109-115.
- 14) 박혜령 (1995). *의복디자인 선에 따른 색채의 착시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31-232.
- 15) Marin, L. Davis. *op. cit.*, pp. 18-22.
- 16) Sailor P. J. (1971). Perception of Line in Clothi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3(2), pp. 987-990.
- 17) Margaret, Baer (1979). Visual recall of Dress design determined by perceptual Sty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5), pp. 292-303.
- 18) 류정아. *앞의 책*, p. 45.
- 19) Marilyn, R. Dlong (1987). *The Way We Look - A Framework for Visual Analysis of Dres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Ames, p. 63.
- 20) 박채련 (1997). 체형에 따른 선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5(1), pp. 307-318.
- 21) 이경성 (1986). *공예통론*. 수학사.
- 22) 이경선 (1976). *미술이란 무엇인가*. 일지사.
- 23) Fallon, A. E., & Rozin, P. (1990). Sex deferences inperceptions of body shape. *Journal of Abormal Psychology*, 94, pp. 32-39.
- 24)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pp. 17-21.
- 25) Douty, H. L., & Brannon, E. L. (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pp. 46-51.
- 26) Labat, K. L., & Delong, M. 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1), pp. 27-31.
- 27) 竹内敏雄(編修) (1983). *美學藝術學事典*. 안영길, 지미정, 오무석, 민은기, 손현숙, 최범, 이재언 역 (1990). *미학·예술학 사전*, 미진사. pp. 14-21.
- 28) 장문호 (1975). *復飾美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8-11.
- 29) Ted, Polyhemus (1988). *Body Style*, Lennard Publishing. p. 51.
- 30) Fashionbiz (2006). 진마켓 뜨겁다. *섬유저널*, 3, pp. 23-25.
- 31) 자료검색일 2009.06.21, 자료출처 <http://www.truereli>
gionbrandjeans.com/Womens_Jeans/pl/c/1170.html
- 32) 어미경, 서미아 (2007). 캐주얼 브랜드의 청바지 생산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4), pp. 702-712.
- 33) 이경림, 박숙현 (2008). 신체만족도와 신체인지도에 따른 의복 맞춤성 만족도. *복식*, 54(1), pp. 69-81.
- 34) 김해순 (2002). *태닝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스티치 장식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정영희 (2000). *Jean 소재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울퉁기와 울퉁기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6) 최진, 도윤희 (2008). 부츠컷 청바지 착용실태 및 맞춤성에 관한 연구 -20~30대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의류학회지*, 32(2), pp. 271-283.
- 37) 이영미, 이인자 (2005). 신체유형과 성별에 따른 청바지 이미지1.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1), pp. 85-99.
- 38) 정삼호 (1988).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가정문화논의*, 12, pp. 61-83.
- 39) 자료검색일 2009.6.20, 자료출처 http://sizekorea.kats.go.kr/02_data/directData01.asp?OlapCode=SIZU020201